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2007 대선패널조사 3차 조사 분석

D-60, 17대선 쟁점 점검

"17대 대선, 다시 2% 싸움으로 갈 것인가?"



주제1. 이명박 후보의 고공행진과 BBK 변수의 폭발력강원택

주제2. 이명박 후보의 이슈전략박찬욱

주제3.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대선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이내영 · 정한울

주제4. 문국현 후보의 딜레마 김성태

주제5. 노대통령 국정주도력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서현진

- 기획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 후원 : SBS · 중앙일보
- 실사 : 한국리서치
-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2006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
- 표본 : 1차 모집패널: 3,503명(2007. 4.25-4.28)
2차 모집패널: 2,911명, 유지율 83.1%(2007. 8.10-8. 13)
3차 모집패널: 2,524명, 유지율 72.1%(2007.10.17-10.20)
- 표본추출 : 지역·성·연령별 쿼터 할당 후 무작위 가구 추출하여 이후 6차 패널조사에 패널로 참여할 응답자 선정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07.10.17-10.20
- 가중치 : 지역(권)·성별·세대·학력별 가중치 부여

[대선패널조사 연구팀 소개]





이명박 후보의 고공행진과 BBK 사건의 잠재된 폭발력

강원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이후 실시된 패널 조사에서도 이명박 후보 지지율의 고공행진은 계속되었다. 패널 3차 조사 결과 이명박 54.2%, 정동영 15.3%, 문국현 7.2%, 권영길 2.3%, 이인제 2.3%로 나타났다. 이명박 후보의 지지는 연령, 학력, 소득 등 어떤 사회경제적 구분과 무관하게 전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높은 지지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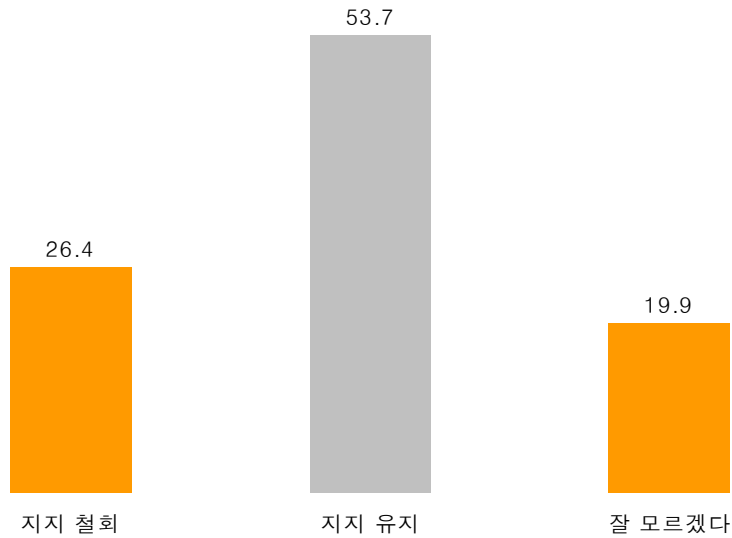
그러나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논란은 대선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은 데 대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이들 가운데 26.4%가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고 19.9%는 '잘 모르겠다'는 관망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가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계속해서 지지하겠다고 밝힌 이들은 53.7%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율이 54.2%임을 감안하면, 만약 이 후보의 BBK 사건 연루가 확인된다면 이 가운데 14~5% 정도가 곧바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관망적 입장을 밝힌 이들 가운데 일부가 지지 철회에 동참하는 경우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30%대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BBK 사건은 이명박 후보가 주도하고 있는 대선 구도의 판을 뒤흔들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지 철회 의사를 밝힌 이들은 이 후보에 대한 지지의 강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 후보를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힌 이들 가운데는 19%가 BBK 연루가 확인되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약한 지지층 가운데서는 31.6%가 지지 철회 의사를 밝혔다. 관망적 입장도 약한 지지층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지 철회 의사를 밝힌 이들은 연령별로는 19~29세층,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와 학생,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제주/강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 후보의 높은 지지율이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을 넘어서는 외연 확대의 결과라고 한다면 BBK 사건은 이명박 지지층 가운데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를 끊어내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BBK 사건은 한나라당 지지층의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후보가 BBK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나라당 경선 전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한 이들 가운데 46.8%만이 계속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고 29.4%는 지지 철회, 23.8%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세론 속에 경선의 후유증을 극소화하고 당내 지지의 통합을 이뤄낸 듯이 보이지만 BBK 사건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당내 통합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는 BBK 사건이 경선 이후 순항해 온 이명박 후보에게 커다란 암초가 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림1] BBK 사건 이명박 후보 연루가 드러날 경우 한나라당 지지자 지지철회(%)



[그림2] 이명박 후보 지지강도별 BBK 사건에 따른 이명박 후보에 대한 태도변화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	BBK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지지 철회	지지 철회 안한다	잘 모르겠다	응답자 수
강하게 지지한다	19	63.8	17.2	658
약하게 지지한다	31.6	43.4	25	212

[그림3] 2차 조사 한나라당 경선지지별 BBK 사건에 따른 이명박 후보에 대한 태도변화

한나라당 경선 전 지지후보 (패널 2차)	BBK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지지 철회	지지 철회 안한다	잘 모르겠다	응답자 수
이명박	22.3	61.4	16.4	818
박근혜	29.4	46.8	23.8	372



이명박 후보의 이슈전략

박찬욱(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성장도 양극화 완화도, 경제는 이명박?

전체 응답자의 37.9%가 경제양극화 완화, 32.6%는 경제성장을 차기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지적하였다. 경제성장은 보수적인 한나라당에 유리하고, 양극화 완화는 좀 더 진보적인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친화적이기 마련이다. 성장을 지적한 사람들의 절대다수인 68.8%는 한나라당이 이를 가장 잘 해결할 것이라고 보았다(대통합민주신당은 8.4%). 하지만 예상과 달리 양극화 완화를 지적한 응답자들 역시 상대다수인 48.4%가 문제해결에 가장 적합한 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을 꼽았다(대통합민주신당 16.2%). 성장 우선과 양극화 완화는 상충될 수 있는 목표이지만 지금은 단일의 경제 이슈로 묶여져 있고, 경제해결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이를 선점하여 유리한 입장에 있다.

범여권은 이 후보의 경제가 돈과 땅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양육강식 가짜경제라고 공격했다. 이 후보의 전유물이 된 경제 살리기 과업을 그로부터 분리해내고 찬반 대립의 이슈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범여권의 이 주장에 대해 응답자 중 45.3%가 공감한다, 43.6%는 그렇지 않다고 했으며, 나머지 11.3%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상당수 유권자가 양극화 완화와 맥이 통하는 범여권의 견해를 수긍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아닌 정당이 이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형국이다.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은 지지자 집결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아

교육문제는 유권자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하며 논쟁의 가능성도 크게 안고 있다. 선명한 입장을 취하여 유권자들을 지지자와 반대자로 가르고 지지를 결집해낼 수 있다. 물론 반대가 오히려 강화되는 역효과의 위험도 있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은 정책논쟁을 주도하고 지지층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늘리겠다는 공약에 대해 응답자의 50.4%가 찬성, 34.6%는 반대, 그리고 15.0%가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데 특히 유권자의 절반을 넘는 이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 찬반이 약 7대 2로 갈려 더욱 그러하다.

대운하 공약의 득표력 아직은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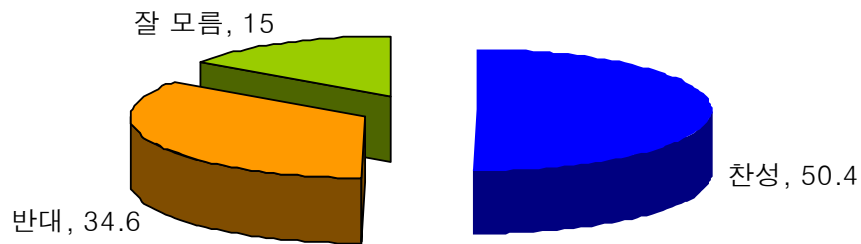
대조적으로, 대운하 사업 공약은 이 후보가 유권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할 경우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조사결과 이에 대해서는 찬성 39.5%, 반대 40.3%, 잘 모르겠다 20.1%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절반에 훨씬 못 미치고 반대 의견과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현재로서 대운하 공약은 이 후보의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1] 차기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와 문제해결 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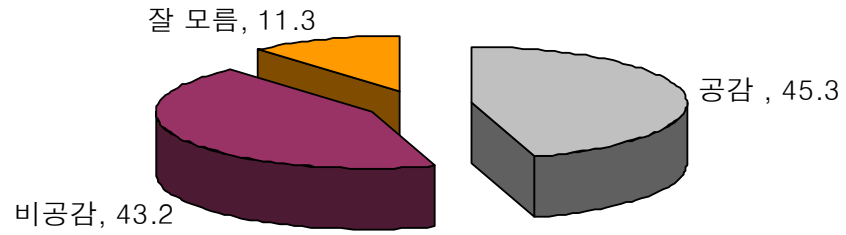
		각 문제 해결정당									
		대통합민주	한나라	민주당	민주노동	국민중심	문국현	신없다	모름/ 무응	Total	
차기정 부 최 우선 국정 과제	국민통합	32	39	5	7	0	3	11	10	107	
		29.9%	36.4%	4.7%	6.5%	.0%	2.8%	0.3%	9.3%	10.0%	
	경제적양극화	154	463	16	98	5	68	112	39	955	
		16.1%	48.5%	1.7%	10.3%	.5%	7.1%	1.7%	4.1%	10.0%	
	남북관계개선	60	24	7	2	1	2	4	8	108	
		55.6%	22.2%	6.5%	1.9%	.9%	1.9%	3.7%	7.4%	10.0%	
	정치개혁	18	29	6	11	0	4	33	8	109	
		16.5%	26.6%	5.5%	10.1%	.0%	3.7%	10.3%	7.3%	10.0%	
	경제성장	69	566	5	16	1	29	83	53	822	
		8.4%	68.9%	.6%	1.9%	.1%	3.5%	0.1%	6.4%	10.0%	
	국제경쟁력강	14	72	4	5	2	7	21	5	130	
		10.8%	55.4%	3.1%	3.8%	1.5%	5.4%	6.2%	3.8%	10.0%	
삶의질개선	22	83	1	21	0	14	47	10	198		
	11.1%	41.9%	.5%	10.6%	.0%	7.1%	13.7%	5.1%	10.0%		
국가안보강화	2	11	0	0	0	7	3	7	30		
	6.7%	36.7%	.0%	.0%	.0%	23.3%	0.0%	23.3%	10.0%		
Total		371	1287	44	160	9	134	314	140	2459	
		15.1%	52.3%	1.8%	6.5%	.4%	5.4%	2.8%	5.7%	10.0%	

[그림1] 대학입시 단계적 자율화/ 자율형 사립고 확대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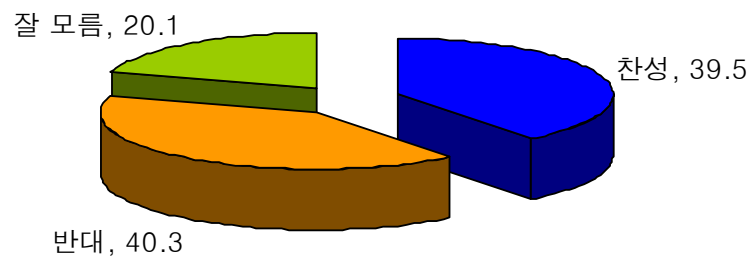




[그림2] 이명박 후보 경제정책 비판 : 약육강식 가짜경제 주장에 대한 공감(%)



[그림3] 대운하 공약에 대한 평가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대선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이내영(EAI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정외과 교수)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민주화 이후의 대선들이 예외 없이 수십만 표의 근소한 차이로 승자가 결정되었던 치열한 경합선거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선거는 이명박 후보의 독주가 선거막판까지 이어지면서 싱겁게 막을 내리는 이례적 선거가 될 것인가? 범여권 후보들의 지지도를 합해도 이명박 후보의 지지도에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여권이 이명박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범여권 후보들의 단일화라는 점은 이견이 없다. 그러나 범여권 후보들이 단일화 합의가 쉽지 않고, 설령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명박 후보를 추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패널조사 결과를 통해 범여권의 마지막 승부수가 될 범여권 후보단일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따져보았다.

이번 조사결과는 대통합민주신당 · 민주당 · 문국현 신당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범여권 단일후보의 조건이 성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범여권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여 이번 조사에서 정동영(15.3%) · 문국현(7.2%) · 이인제(2.3%) 세 후보의 지지율 총합이 24.8%까지 늘어났다. 지난 4월 조사에서 10명의 범여권 후보 지지율 총합이 10%를 간신히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이다. 특히 대통합신당의 경선 이후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여권에게는 모처럼 희망적인 조짐이다. 문국현 후보 역시 초반의 기세에서 다소 주춤하지만 7%대로 지지도를 높이고 있다.

범여권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과 더불어 범여권단일화론에 대한 국민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후보단일화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2차 조사와 3차 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정권 교체론에 공감한 응답자는 58.6%에서 59.2%로 변동이 거의 없었지만, 범여권통합과 후보단일화에 공감을 표한 응답자는 40.1%에서 50.2%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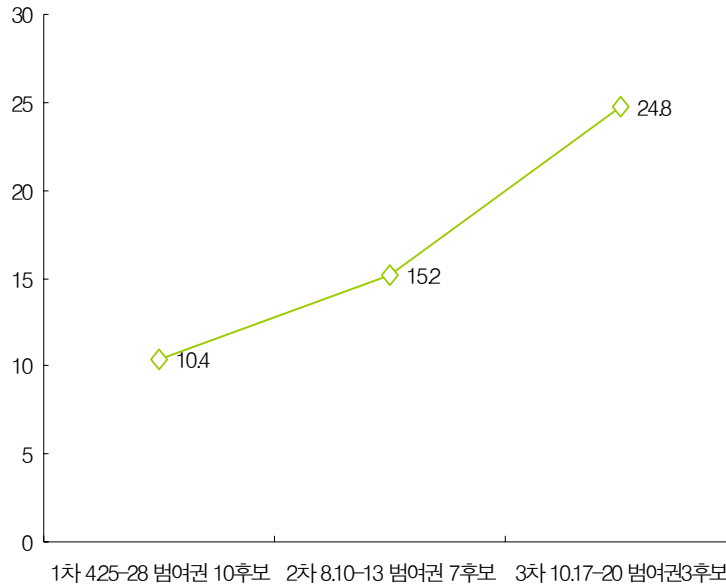
정동영 후보의 지지도 상승과 범여권 후보단일화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범여권이 대선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내막을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첫째, 정동영 후보는 현재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 나섰던 손학규 · 이해찬 후보 지지층조차 자신의 지지층으로 흡수하는 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2차 패널조사에서 손학규 후보를 지지했던 168명 중 29.2%와 이해찬 후보를 지지했던 35명 중 34.3%만이 정동영 후보 지지로 이어졌다. 손 후보와 이해찬 지지자의 3명 중 2명은 정동영 후보가 아닌 후보를 지지하거나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동영 후보 지지층의 68.6%, 문국현 후보 지지자의 69.0%, 이인제 후보 지지자의 63.4%가 후보단일화에 공감하고 있지만, 이명박 지지층의 43.5%,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부동층에서는 43.0%만이 여권후보단일화에 공감한다고 답하고 있다. 이 결과는 범여권의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범여권 지지층을 확대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범여권으로서는 이명박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후보단일화와 범여권 지지층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한다. 경선 이후 활력을 찾아가는 범여권이 마냥 낙관적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림1] 범여권 후보들의 지지율 총합 변동(1, 2, 3차)



※ 민주노동당 후보는 범여권에서 제외. 1차 조사당시 탈당했던 손학규 후보는 범여권으로 공식적으로 분류할 수 없어 제외함.

1차 범여권 후보 : 강금실, 김근태, 김두관, 김혁규, 문국현, 정동영, 정운찬, 천정배, 유시민, 한명숙 등 10명

2차 범여권 후보 : 손학규 유시민, 이해찬, 정동영, 조순형, 한명숙 등 6명

3차 범여권 후보 : 정동영(15.3%), 문국현(7.2%), 이인제(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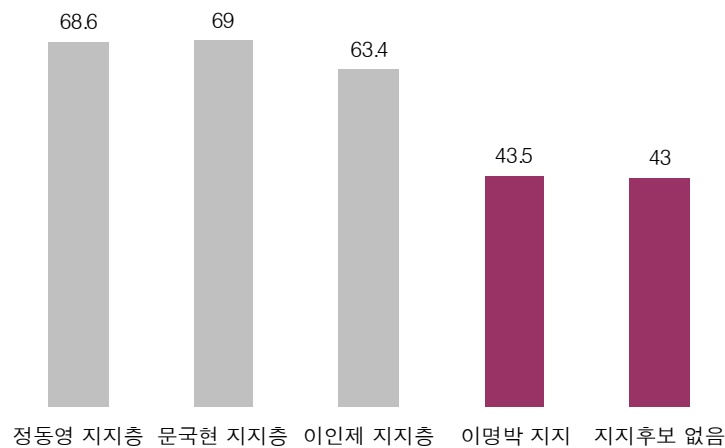
[그림2] 대선 지지후보 변동(2차→3차: 수치는 빈도수, 괄호안은 %)

2차→3차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이인제	권영길	다른 후보	없음	모름/무응답	전체
이명박	818 (84.2)	57 (5.9)	23 (2.4)	19 (2.0)	6 (0.6)	5 (0.5)	28 (2.9)	15 (1.5)	971 100
박근혜	372 (57.7)	79 (12.2)	29 (4.5)	21 (3.3)	13 (2.0)	9 (1.4)	86 (13.3)	36 (5.6)	645 100
손학규	30 (17.9)	49 (29.2)	38 (22.6)	1 (0.6)	4 (2.4)	6 (3.6)	26 (15.5)	14 (8.3)	168 100
정동영	3 (4.5)	53 (80.3)	5 (7.6)	0 (0.0)	0 (0.0)	0 (0.0)	4 (6.1)	1 (1.5)	66 100
이해찬	5 (14.3)	12 (34.3)	7 (20.0)	4 (11.4)	1 (2.9)	1 (2.9)	4 (11.4)	1 (2.9)	35 100
다른후보	27 (15)	37 (20.6)	48 (26.7)	5 (2.8)	26 (14.4)	4 (2.2)	20 (11.1)	13 (7.2)	180 100
선택후보없다/모름	76 (21.9)	74 (21.3)	27 (7.8)	6 (1.7)	9 (2.6)	8 (2.3)	121 (34.9)	26 (7.5)	347 100
모름/무응답	35 (30.7)	24 (21.1)	5 (4.4)	2 (1.8)	1 (0.9)	3 (2.6)	26 (22.8)	18 (15.8)	114 100
Total	1366 (54.1)	386 (15.3)	182 (7.2)	59 (2.3)	60 (2.4)	35 (1.4)	315 (12.5)	124 (4.9)	2527 100



2차 8.10-13		이동규모	3차 10.17-20	
이명박 971명	-----	18명(84.2%)	----->	이명박
	-----	57명(5.9%)	----->	정동영
	-----	53명(5.0%)	----->	다른 후보
	-----	43명(4.4%)	----->	없음/모름
박근혜 645명	-----	372명(57.7%)	----->	이명박
	-----	79명(12.2%)	----->	정동영
	-----	72명(11.1%)	----->	다른 후보
	-----	122명(18.9%)	----->	없음/모름
정동영 66명	-----	3명(4.5%)	----->	이명박
	-----	53명(80.3%)	----->	정동영
	-----	5명(7.6%)	----->	문국현
	-----	5명(7.6%)	----->	없음/모름
손학규 168명	-----	30명(17.9%)	----->	이명박
	-----	49명(29.2%)	----->	정동영
	-----	38명(22.6%)	----->	문국현
	-----	11명(6.6%)	----->	다른 후보
	-----	40명(23.8%)	----->	없음/모름
이해찬 35명	-----	5명(14.3%)	----->	이명박
	-----	12명(34.3%)	----->	정동영
	-----	7명(20.0%)	----->	문국현
	-----	6명(17.2%)	----->	다른 후보
	-----	5명(14.3%)	----->	없음/모름

[그림3] 주요후보 지지층 및 부동층의 “한나라당 집권 막기 위한 범여권 후보단일화 찬성” 비율(%) : 매우 공감 + 대체로 공감한다





“응답자 4명중 1명만 알고 있다고 밝힌 문국현 후보의 딜레마”

김성태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최근 범여권 후보단일화의 다크호스로 등장한 문국현 후보에 대한 지지도, 도덕성, 국정 운영능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다. 먼저 지지도 측면에서는 각각 2.3%를 보인 이인제, 권명길 후보에 비해 높은 7.2%를 기록했지만, 이명박(54.2%), 정동영(15.3%) 후보와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에서 문후보의 경우 “매우 잘 알고 있다” 혹은 “약간 아는 편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이명박(91.6%), 정동영(80.5%), 이인제(74.2%), 권명길(48.1%) 후보에 비해 매우 낮은 22.5%를 기록했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동영 후보의 약 4분의 1 정도이다. 그런 면에서 다른 후보자에 비해 매우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지지도 3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대통령 자질과 관련한 도덕성(10점만점) 측면에서는 후보자들간의 상호비방이 난무한 경선 과정을 치룬 정동영(5.4), 이명박(5.1), 이인제(4.6) 후보에 비해, 권명길 후보와 함께 5.8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문후보의 경우 국정 운영능력 평가에서는 이명박 후보(6.7), 정동영 후보(5.3), 이인제 후보(4.8)에 비해 다소 낮은 4.4를 보였는데, 이는 CEO 출신 정치인에 대한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범여권 후보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문후보의 인지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대선 정국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지난 몇 차례의 패널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조심스러운 전망은 가능할 것이다.

첫째, 지금까지 3차례의 조사에서 대통령 선택 기준으로 후보자의 능력과 경력이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꾸준히 50%를 상회하였다. 반면에,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 조사 19.4%, 2차 조사 17%였던 비율이 이번 3차 조사에서는 12%대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도덕성에 비해 국정 운영능력면에서 다소 열세의 평가를 받고 있는 문후보로서는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체감할 수 있는 어려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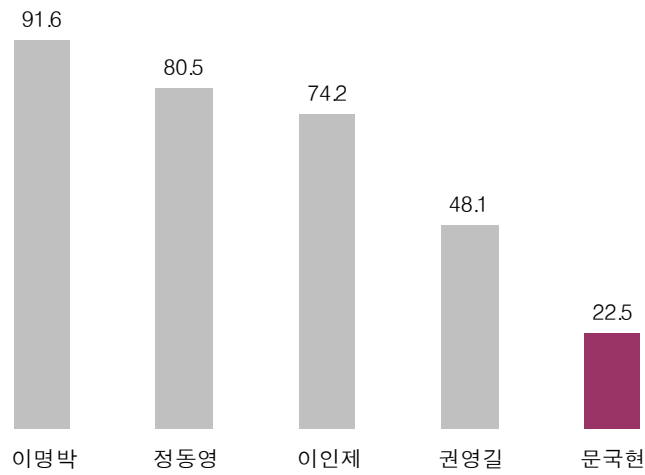
둘째, 지지 후보자 변화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이명박 후보의 경우는 1차 조사때 지지했던 78.5%, 2차 조사 때 지지했던 84.2%가 이번 3차 조사에서도 여전히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정동영 후보 또한 1차 60%, 2차 80.3%가 이번 3차 조사에서도 지지후보자를 바꾸지 않고 정후보를 지지하였다.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지지후보자를 바꾸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재 약 7%대의 지지율을 보이는 문후보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p4[자료])

셋째, 이번조사를 통해 문국현 후보 지지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손학규 전경기지사 지지층의 22.5%가 문후보측으로 갈아탄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이명박 후보나 정동영 후보 지지층의 경우는 각각 2.4%, 7.6%만이 문후보측으로 지지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차 조사에서 지지후보자가 없다고 응답한 미결정자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새롭게 문후보를 지지한 비율은 미결정자층의 7.8%인데 반해, 이명박, 정동영 후보는 각각 21.9%와 21.3%의 유입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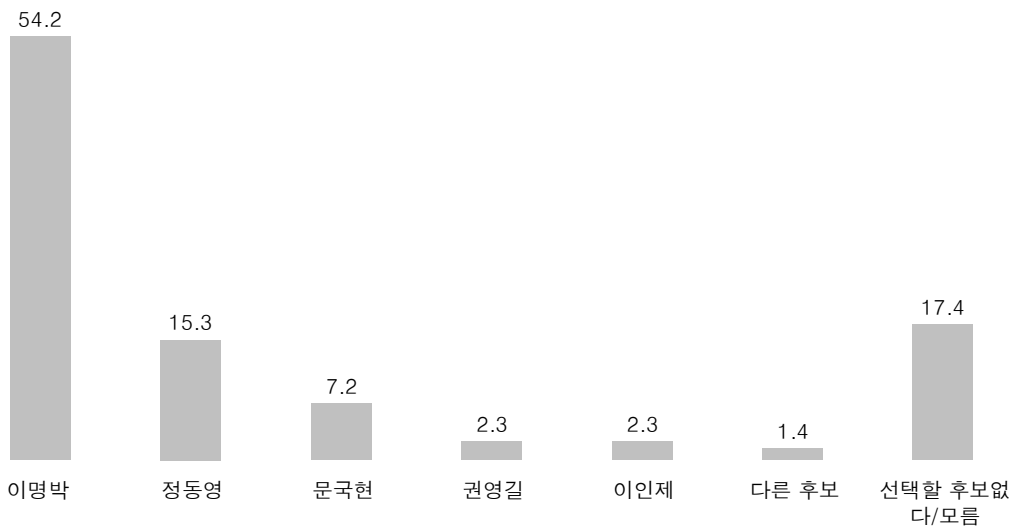
한편, 이후보와 정후보의 경우 지지강도(“아주 강하게 지지” 혹은 “강하게 지지”)가 높은 지지계층의 비율이 각각 69.7%와 56.6%로 나타났음에 비해 문후보측은 50.6%를 보였다. 이 또한 향후 선거판도를 예상하는데 참고해볼만한 결과라 하겠다.



[그림1] 대선후보 인지도(%)



[그림2] 대통령후보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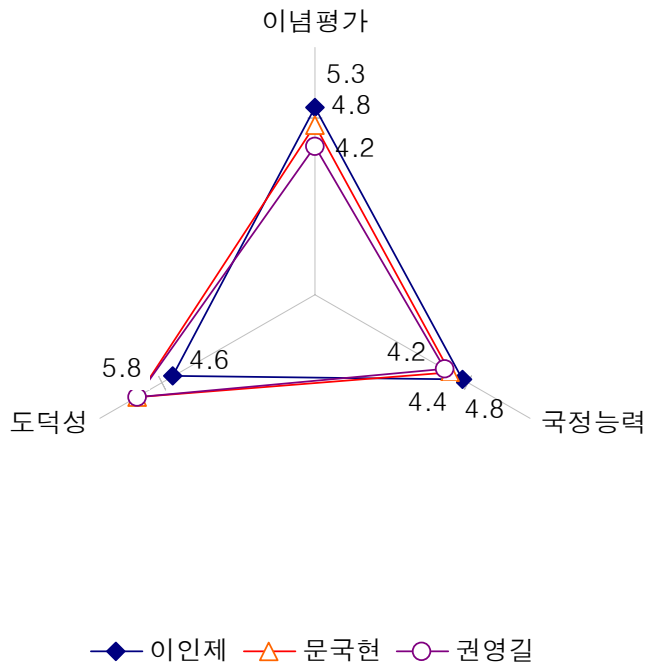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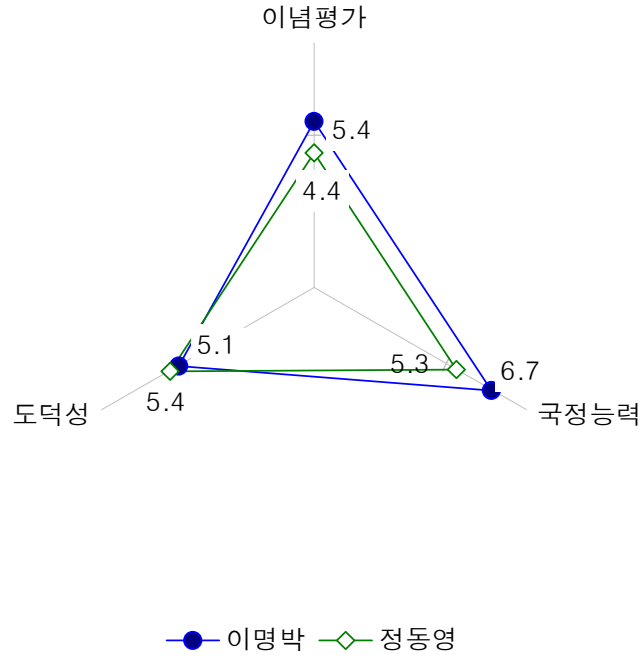


[표1] 후보결정요인의 변화

2049명	능력/경력	소속정당	도덕성	정책공약	당선가능성	출신지역	기타	모름/무응답
1차	57.6	4.9	17.0	11.0	4.1	1.1	4.1	0.1
2차	57.1	6.0	19.5	7.8	5.0	1.0	3.4	0.2
3차	52.5	13.9	12.2	11.1	5.0	1.0	3.9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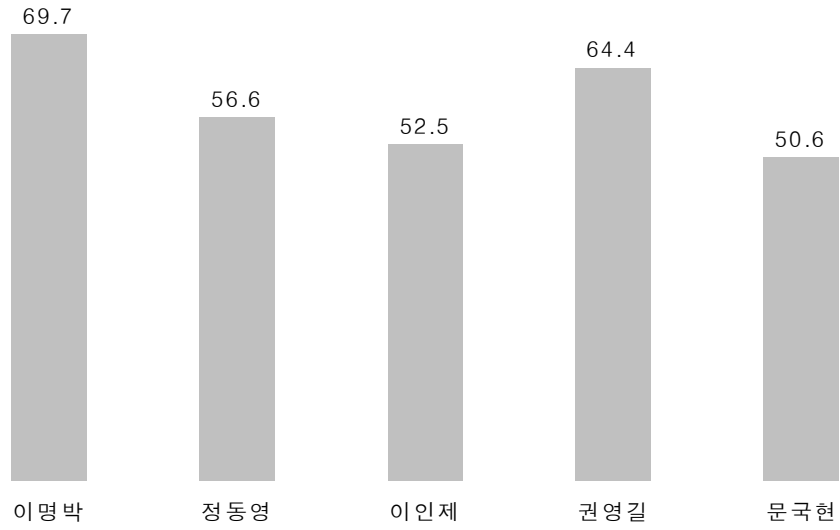
[그림3] 후보에 대한 특성 평가(10점 만점)



도덕성 0~5 미만 : 비도덕적, 5 : 보통, 5초과~10점 : 도덕적
 이념평가 0~5미만 : 진보적, 5: 중도, 5초과~10점 : 보수적
 국정능력 0~5미만 : 미흡함, 5: 보통, 5초과~10점 : 충분함



[그림4] 후보 지지자별 후보 지지강도 : 매우 강하다+ 강하게 지지하는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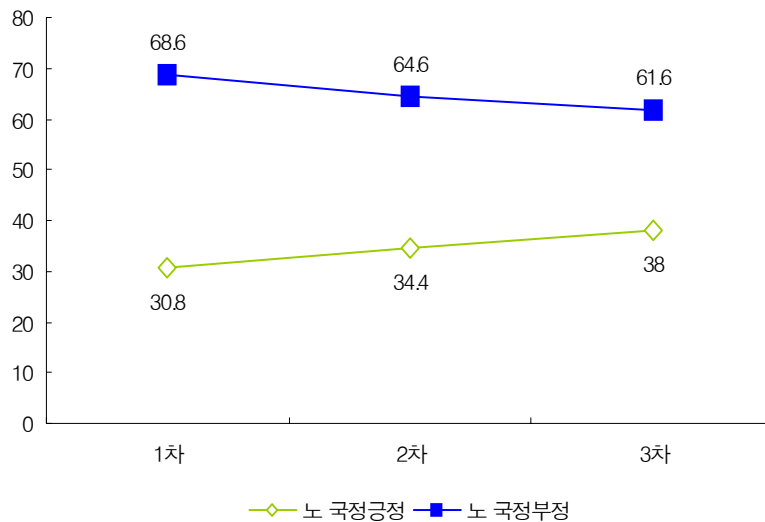
노대통령 국정주도력이 대선정국에 미치는 영향

서현진(성신여대 사회교육학과)

1. 노대통령 지지 증가현상

보편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차기 대선 후보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이번 대선의 후보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먼저 1차에서 3차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긍정적인 평가는 놀랍게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반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하락하여 긍정적 평가와의 격차가 38%(1차)에서 23.6%(3차)로 줄어들었다.

[그림1] 노 국정평가 평가 변동(%)



2. 3차 조사 결과, 북한 이슈-노대통령 평가

		노대통령 평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남북정상회담	긍정적 평가(72%)	94.5	70.7
	부정적 평가(17.7)	5.5	29.3
	계	100	100
NLL이슈	북한과 협의 가능(30.5)	42.3	23.3
	북한과 협의 불가능(38.3)	24.7	46.7
	모름(31.1)	33	30
	계	100	100



이는 임기 말 레임덕 기간엔 흔치 않은 현상인데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과 NLL 논쟁 등 북한이슈를 통해 정국주도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3차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영향력에 대해 응답자의 72%가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는데,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의 94.5%는 정상회담의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자의 46.7%는 협의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고 답한 반면 긍정적인 응답자의 42.3%는 북한과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와 같이 북한이슈에 대한 태도와 노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노무현 대통령 평가와 후보지지

그렇다면 이런 노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상승현상은 범여권 대선후보들의 지지율 향상으로 이어질까? 1차부터 3차 조사결과를 보면 노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유권자들 중에 이명박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한 유권자 비율은 소폭 하락하였는데 특히 3차 조사를 보면 박근혜 지지층을 이명박 후보가 거의 흡수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정동영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대폭 증가하여 3차 조사에선 이명박 후보와의 차이가 현저히 좁혀졌다. 또한 문국현 후보에 대한 지지는 11.1%나 되었고 이인제 후보에 대한 지지도 3.2%가 되어 범여권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합산하면 40.2%로 이명박 후보를 능가한다. 이처럼 노대통령 지지층에서 범여권 주자에 대한 지지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노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지, 그렇다고 해도 범여권 후보들에게 유리할지는 미지수이다. 각 조사시점마다 노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자 중에서 이명박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3차 조사결과에서도 이명박 후보 선택 비율은 여전히 가장 높았고 지지후보가 없다는 비율도 21.4%가 되었다. 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이 대통령합민주신당 창당과정에서 노정권과 차별화 전략을 꾀했던 정동영 후보 지지로 직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노대통령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정동영 후보를 비롯한 범여권 후보들이 다시 ‘노심’을 얻어야 할지 고뇌가 깊어지는 대목이다. 노심을 다 얻는다고 해도 노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의 67%가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큰 승산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즉 ‘노심’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이는 단지 범여권 지지자들의 결집효과만 있을 뿐 이명박 지지자들을 공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노심을 얻어야 할지 차별화를 고수해야 할지 그것이 문제로다.



[표2] 노대통령 긍정적 평가자의 후보 지지 변화

	1차	2차	3차
이명박	37.8	30.1	33.7
박근혜	14.5	18.1	-
손학규	7.5	10.8	-
정동영	5.9	4.5	25.9
이인제	-	-	3.2
문국현	.5	-	11.1
권영길	.8	1.3	2.8
지지후보없음	18.4	23.6	21.4
기타			
계	100	100	100